



# ‘최순실 국정농단’ 분노... 트럼프 당선 ‘지구촌 멘붕’



## 국내

### 1.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연말 정국이 요동쳤다. 검찰은 최씨는 물론 국정농단을 도운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하고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국회는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 2. ‘위대한 촛불집회’...시민혁명 이뤘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기치를 내걸고 전개된 촛불집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끌어낸 결정적 요소였다. 수차례 참가자 대다수가 평화집회를 벌였고, 광장에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평화롭게 의견을 표출하는 시위문화에 외신들도 찬사를 보냈다.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광장 민주주의’로 구현돼 기성 정치권의 행보를 오히려 견인했다는 평가다.

### 3. 김정은 핵도발과 개성공단 폐쇄...집단 탈북 사태

올해 노동당 위원장에 오르며 명실공히 북한 당·군·공의 정점에 선 김정은은 1월 6일과 9월 9일에 각각 단행한 두 차례 핵실험과 24차례의 각종 탄도 미사일 발사로 2016년 한 해 핵무기 실전 배치에 성공 다가갔다. 이에 한국 정부는 2월10일,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자 유일한 남북관계의 끈이었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외교관·식당 종업원 등의 집단 탈북도 이어졌다.

### 4. 4·13 총선 집권여당 참패...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은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를 출범시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 122석을 얻는 데 그쳐 과반의석을 잃은 것은 물론 원내 제1당의 지위까지 더불어민주당(123석)에 내줬다. 국민의당은 38석을 거머쥐어 확고한 제3당의 지위를 굳혔다. 이후 새누리당은 공천과정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여론성향 당선인들이 일괄 복당하면서 가까스로 원내 1당의 지위를 회복했으나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되찾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 5.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전격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시행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 시대가 열렸다. 이 법은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 이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접대문화가 변화하게 됐으나 법 해석을 놓고 적지 않은 혼란도 발생했다. 또 농·축산업과 화훼업 등 일부 산업에는 피해도 발생했다.

### 6. 사드배치 논란과 중국 반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마다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한·미 군 당국은 성주 내 롯데관광장으로 부지를 변경해야 했다. 사드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한 중국이 반발해 한류 연에 인출된 금지와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일박의 전선을 문화에서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했다.

### 7.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세기의 대국

올해 3월 서울에서 인간 최고 기사와 최진 인공지능(AI) 간 ‘세기의 대국’이 열려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구글의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 딥마인드는 ‘알파고’라는 바둑 인공지능을 개발해 인간 최고수로 인정받은 이세돌 9단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알파고는 상상을 뛰어넘는 기력을 과시하며 이세돌 9단을 몰아붙였고, 4대1 압승을 거뒀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건이었다.

### 8. 한진해운 청산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국내 1위 원양선사였던 한진해운이 8월 말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해운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는 글로벌 물류대란을 촉발한 데다 국내 해운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한때 전 세계 선박의 70%를 건조했던 우리나라 조선업도 계속되는 수주 가뭄에 막대한 적자를 기록,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 9. 전현직 판검사의 민낯 드러난 법조비리 수사

원정 도박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가 변호사에게 낸 거액 수입료 논란을 계기로 법조계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전 전 대표의 정략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직 부장판사, 전직 검사장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구속기소되는 등 법조계 안팎에 충격을 안겼다.

### 10. 경주 지진--한반도 지진안전지대 아니다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 아니라는 점을 새삼 일깨웠다.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점(내남면 내남초등학교 인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보다 앞선 오후 7시 44분 경주 남남서쪽 8.2km 지점에서 5.1 규모 전진이 발생했다. 규모 5.8의 지진은 지난 1978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다.



광화문 촛불집회.

/광주일보 DB



밥 딜런

독일 베를린 '트레테라' 현장



이세돌-알파고 대결



영국 43년 만에 EU 탈퇴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나선 김천시민들

/연합뉴스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돼 전 세계에 파장을 안겼다.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로 인기를 얻은 억만장자 부동산재벌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 경선에 도전했을 때만 해도 흥행을 위한 깜짝 카드 정도로 여겨졌다. 특히 ‘막 말’과 ‘여성비하’ 발언 등으로 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빚었지만, 그는 유력 주자들을 따돌리고 공화당 후보가 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까지 물리쳤다.

### 2. G-2 美中 신냉전...세계질서 재편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 지역 패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신(新)냉전’ 시대를 열었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한 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며 ‘신냉전’ 구도를 만들었다. 동유럽에서도 미국을 주축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는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다.

### 3. 급변 동북아 정세--한반도 격랑의 시대로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동북아 주변 4강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한반도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미·중간 패권 경쟁은 대북 제재에서도 첨예해 미국은 일본과 손잡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한 반면, 중국은 러시아와 공조해 북한의 민생과 인도적 수요를 위협하는 제재는 허용하지 않는 기싸움을 벌였다.

### 4. 영국, 43년만에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가입 43년 만에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선택, 국제 정치·경제적 격변시대를 열었다. 세계 5위 경제대국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유럽 각국에서 EU 탈퇴 정당이 약진해 EU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다. 브렉시트는 유럽 각국에 경제난과 테러 우려 등으로 난민 문제가 심해지면서 국내 통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EU를 떠나야 한다는 반난민·반이민정서가 표심으로 드러나는 기폭제가 됐다.

### 5. 반기독권 민심 분출에 우파·포퓰리즘 득세

새로운 정치를 갈구하는 민심이 세계를 휩쓸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시킨 미국과 브렉시트를 선택한 영국에 그치지 않고 확산 추세다. 프랑스에서는 중도좌파 집권 사회당이 몰락하고, 아이슬란드의 포퓰리즘 정당 해당당은 원내 공동 제2당에 올라 정권 구성까지 시도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의 좌파 무장게릴라 출신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가 탄핵당했다.

### 6. 니스·브뤼셀·올렌도 테러--소프트타깃 테러 공포

‘이슬람국가’(IS)와 자생적 테러리스트(외로운 늑대)의 테러는 올해도 프랑스 니스와 벨기에, 미국, 터키 등에서 이어졌다. 특히 민간인들을 직접 겨냥하는 소프트타깃 테러가 급증했다. 지난 12월 19일(현지시간) 트럭 한 대가 베를린 서부의 변화가인 브라이트사이트 광장의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돌진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 7. 소두증 지카바이러스 공포 지구촌 엄습

신생아 소두증과 뇌 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지카 바이러스는 남미와 카리브해 일대를 중심으로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73개국에서 발견됐다. 바이러스 감염자는 150만명을 넘는다.

### 8. 반이민 정서 확산--인종·종교 갈등과 반목 고조

올해 지구촌에는 갈등과 반목이 넘쳐났다. 이민자와 소수인종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늘고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가 만연했다. 고향을 떠난 난민들의 ‘우리 피어난 드림’ ‘아메리칸 드림’은 일단 테러에 겁에 질린 서구 백인들의 반난민·반무슬림 정서로 환영받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비무장 흑인을 향한 경찰의 잇따른 총격 사건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 등 인종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 9. 쿠바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타계

쿠바의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11월 25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카스트로는 1959년 1월 풀헨시오 바티스타의 친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산혁명에 성공한 뒤 반세기 쿠바를 이끌며 미국과 소련이 형성한 냉전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 카스트로가 타계한 이후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엇갈렸다. 혁명 시대의 상징이었다는 평가와 독선적인 독재자였다는 비판이 함께했다.

### 10. 밥 딜런 노벨 문학상 수상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이번은 문화계에서도 일어났다. 소설가, 시인 등 문인들이 후보로 오르내린 가운데 스웨덴 한림원이 발표한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75)이었다. 작가가 아니라 음악가로 분류되는 인물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이 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1901년 첫 노벨 문학상 시상 이래 처음이다.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MEMBER-H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